

끝까지 가본다는 것

‘일관(一貫)’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이다. 처음과 끝을 꿰뚫어 하나로 꿰는 뜻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지, 하나의 원리로 꿰는 뜻이다. 이렇게 뜻을 새겨본다면 이 말은 수심(修心)의 차원에 있기도 하다. 일심(一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수행자들이 잠깐이라도 쉬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이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번뇌나 장애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진행이 종결되도록 그 끝까지 가보는 일은 마음을 단는 일이기도 하다.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마음을 정려하게 잘 단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믿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자신(自信)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태준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중에서

문태준

시인

시집: <수린거리는 뒤편>,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오> 등



대림 마루

모든 비즈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최고급 100% 방수 SPC

(제품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2770 Florence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KUNI횃집으로 오세요!!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SASHIMI HOUSE

OPENING HOURS

Mon: Closed

Tue-Sat: 3PM-12AM

Sun: 3PM - 10:30PM